
국어 순화 논의의 성과와 한계

박용찬 ·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국립국어원(국어연구소 시절 포함)은 여섯 차례에 걸쳐 기관지인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에서 국어 순화 관련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국어생활》 제2호(1985. 6.)의 ‘국어 속의 외래어’,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의 ‘국어 순화’,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의 ‘국어에 나타난 일본어의 언어적 간섭’,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의 ‘외래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의 ‘외래어와 외국어’,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의 ‘국어 순화’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국립국어원의 기관지에서 국어 순화가 여러 차례에 걸쳐 꾸준히 특집으로 다루어진 사실은 국립국어원이 국어 순화를 국어 정책 분야의 하나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국어 순화 관련 특집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세부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 외래어 사용 실태, 국어 순화 방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는 주로

《국어생활》 제2호와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에서, 외래어 사용 실태는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와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에서, 국어 순화 방안은 《국어생활》 제14호와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에서 다루어졌다. 물론 이들 세 가지 세부 주제가 각각의 특집호에서 엄정하게 구분되어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어생활》 제2호는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뿐만 아니라 외래어 사용 실태를 함께 다루고 있고,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는 외래어 사용 실태뿐만 아니라 국어 순화 방안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국어생활》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국어 순화를 정리하는 이 글에서는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 외래어 사용 실태, 국어 순화 방안 등 세 가지 세부 주제로 나누어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에서 국어 순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의 한계 및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

외래어에 대한 정의는 무엇보다 《국어생활》 제2호(1985, 55-57쪽)에 자세히 빼놓아져 있다. 이에 따르면 외래어(또는 차용어)는 국어가 빌려 쓰고 있는 다른 언어의 단어를 말하며, 고유어와 함께 자국어를 형성함으로써 국어의 일부를 형성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결국 외래어는 음운, 문법, 의미 등에 걸쳐 국어라는 언어 체계에 따라 그 모습이 변형·국어화된 것을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지극히 원론적인 개념 정의이다.

그러나 실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별해 내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전문 분야 종사자들은 외래어 사용 폭이 아주 커서 그 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데 반해, 일반인들은 그것을 외국어로 판단하여 거부감을 크게 느낀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별은 국어 사용자의 국어 의식

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세상에 외래어가 전혀 없는 나라는 없다. 국어도 마찬가지이다. 국어 속의 외래어는 도입 시기에 따라 '근대화 이전의 외래어'와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로 나뉜다. 근대화 이전에는 대개 중국어, 만주어, 몽고어, 범어 등의 외래어가, 근대화 이후에는 서구 제어(특히 영어) 및 일본어의 외래어가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하여 국어 속으로 들어왔다. 이들 가운데 전자는 이미 외국어 의식이 사라져 대부분이 귀화 단계에 있고, 후자는 아직 귀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 외국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들 외래어는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며 동음이의어를 증가시키며 국어에 없는 발음을 가능하게 해 주는 등 국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많으면 고유어를 크게 위축시키며 외래어식 조어법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도 한다. 특히, 국어의 경우 한자어가 그 현상을 현저하게 나타내며, 서구 외래어도 그 수가 급증하여 이미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외래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국어생활》 제2호(1985. 6.)는 처음으로 '국어 속의 외래어'를 특집 주제로 다루었다. 먼저 외래어 유입 과정에 대한 논의로서, 남풍현(1985)은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받아들인 단어를 차용어 또는 외래어라 규정하고, 고대 국어부터 근대 국어까지 국어 속에 차용된 말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차용어는 중국어, 몽고어, 여진어, 만주어 등으로부터 차용한 직접 차용어와 한문을 통한 간접 차용어(한자어)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차용어는 대부분 국어에 동화되어 고유어와 다름없이 쓰이고 있고 간접 차용어인 한자어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강신항(1985)은 서구 외래어의 수용 과정을 개화기,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로 나누어 살핀 후, 우리 국어 안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

는 외래어의 사용 실태를 분야별로 세밀하게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외래어에 대하여 고유어와의 조화로운 사용을 강조했는데, 외래어의 남용 원인이 외래어 신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유어를 바탕으로 한 신어의 형성과 사용을 구체적인 외래어 남용 예방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외래어 유입이나 수용 과정이 아닌 외래어 사용상의 문제로서, 박갑천(1985)은 우리가 지나치게 외래어를 많이 쓰고, 그 표기를 혼란스럽게 쓰고 있는 사실을 외래어 사용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어 순화 전담 기구의 설립·상설화, 외래어(표기) 용례집의 발간·배포 등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유만근(1985)은 외래어는 자국의 언어 체계에 맞게 변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서의 외래어 수용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 김종서(1985)는 외래어가 '음차'되어 수용되는 경우 외국어와 국어의 음운 및 음운 체계의 차이로 인해 표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1984년 국어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잡지 16종에 대한 동음 이표기의 자료 일부를 제시하였다.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도 '외래어와 외국어'를 특집 주제로 삼아, 외래어의 개념 및 올바른 수용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다루어 논의를 진전시켰다.

먼저 정희원(2004)은 외래어 개념과 관련된 논의로서, 지금까지 '외국어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정의되어 온 '외래어'를, 관련 용어인 '외국어' 및 '차용어', '귀화어' 등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외래어' 개념을 수정하여 재정의하였다. 임홍빈(1997)이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제시한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¹⁾ 확장하여,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기는 하나 동화의 과정을

1) '쓰임의 조건'은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동화의 조건'은 외국어가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 모두

완전히 거치지 못한 것들까지도 '외래어'로 보았다. 그리하여 외래어, 차용어, 귀화어 등은 모두 다 외국어에서 와서 국어 속에 널리 사용되는 말들이고, 이 가운데 국어에 완전히 동화되어 외국어에서 온 말이라는 의식이 없이 고유어와 똑같이 취급되는 말은 귀화어로, 일반 언중이 외래어 취급을 인식하는 나머지 말은 모두 외래어로, 외래어 가운데 동화 과정이 완료되어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말은 차용어라 하여 따로 구분하였다. 덧붙여 국어 순화의 대상은 '차용어'를 제외한 외래어가 되어야 함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강신항(2004)은 외래어 사용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자어를 포함한 외래어가 각 분야에 걸쳐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으며[서사(書寫) 어휘의 4/5 이상] 오늘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한자어를 포함한 외래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국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데서 생긴 현상으로 봐서 외래어의 남용은 국어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 밖에도 박창원·김수현(2004)은 외국어가 국어에 수용되어 외래어가 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표기 양상의 변화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이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들온말 적는 법'(1948),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 '외래어 표기법'(1986) 등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유재원(2004)은 어느 언어고 간에 외래어 차용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므로 외래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대별로 특정한 외국 언어[중국어(한자어)→일본어→영어]만을 외래어의 주된 원천으로 삼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외래어를 받아들임에 있어 원천 언어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덧붙여 이렇듯 원천 언어에 대해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올바른 외래어 수용 태도가 아

갖춘 부류만이 '외래어'로 인정되고 그 밖의 것들은 '외국어'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았다.

님을 지적하였다. 전자는 외래어 표기의 문제를, 후자는 외래어 인식 및 태도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3. 외래어 사용 실태

지금까지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주로 지목된 것은 한자어, 일본어, 서구 외래어 등이다. 이 가운데 일제 강점기를 겪은 우리의 특수한 사정으로써 인해 광복 이후부터 줄곧 일본어가 국어 순화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심각한 남용 현상으로 인해 서구 외래어(특히, 영어계)가 국어 순화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는 국어 순화 대상 가운데 광복 이후부터 줄곧 국어 순화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던 일본어의 사용 실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먼저 김광해(1995)는 국어 속의 일본어로 고유 일본어, 혼동 한자어, 조사 '의'·접미사 '-적(的)', 일제 속어, 일본식 서구 외래어 등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전문 학술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신문명(新文明) 한자어 대부분도 일제 한자어임을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국어 속의 일본어는 지속적으로 청산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봤지만 일제 한자어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그 청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정수·우인혜(1995)도 국어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서구 외래어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식으로 굴절되고 변조된 것으로 보았다. 정광(1995)도 '-고 있다', '-있을 수 있다', 피동형 표현, 비인칭 대명사나 무정 명사가 주어로 쓰인 표현 등이 모두 일본어 구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관용적 표현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어의 영향(이들 가운데는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매우 많았음)을 적지 않게 받았다고 보았다. 강신항(1995) 또한 우리말에서 쓰

이고 있는 한자어 가운데 일제 한자어가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받아들여졌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신각철(1995), 박계양(1995), 허철구(1995), 정제도(1995) 등은 각각 법률, 신문·방송, 건설·미술 등의 전문 분야 및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아직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일본어의 사용 실태 및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는 최근 들어 심각한 남용 현상으로 인해 국어 순화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서구 외래어의 사용 실태와 서구 외래어의 순화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먼저 김세중(1998)은 서구 외래어가 20세기 이후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영어 단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송철의(1998)는 서구 외래어(특히, 영어계)가 날이 갈수록 늘어 가고 심지어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외래어를 적절하게 선별(동화 정도 및 사용 빈도 고려)하여 언중들의 언어 감각에 맞는 적절한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은경(1998), 이정복(1998), 고성환(1998), 이선영(1998) 등은 각각 방송, 컴퓨터 통신, 신문·잡지, 상호·상표 분야에서의 외래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한결같이 외래어의 오용과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외래어의 오용과 남용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외래어를 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와 언어’를 특집으로 다룬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에서 김세중(1992), 신인섭(1992), 이주행(1992), 박갑수(1992) 등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광고에서의 외래어 남용 및 표기·발음 혼란 문제를 지적하였고, ‘신문·방송 언어’를 특집으로 다룬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겨울)에서 이주행(1995), 박갑수(1995) 등도 부분적으

로 신문 또는 방송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최규일(1995)은 신문과 방송에서 거리낌 없이 쓰이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들 일본식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국어 순화 방안

구체적인 순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는 ‘국어 순화를 특집 주제로 다루었다. 특히, 《국어생활》 제14호는 ‘국어 순화의 바른 길’(59-79쪽)이라는 제목 하에 국어연구소 연구원들의 좌담 결과를 실어, 국어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는 향후 추진할 국어 순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좌담에서는 먼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 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찾았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는 차츰 쉬운 고유어로 바꾸어야 하지만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한자어는 순화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새말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고어나 방언에서 살려 쓸 수 있는 말들을 발굴해 내야 하고, 학술 용어의 번역을 한자어로만 하려 하지 말고 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순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국어 순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어 순화 운동을 총괄할 상설 기관의 설립과, 연구 기관과 정부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아주 절실하다고 보았다.

《국어생활》 제14호에 실린 각 논문들도 한자어, 일본어, 서구 외래어를 어떻게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순화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그 가운데 김민수(1988)는 한자어는 귀화한 지 너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쓰여서 순화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일본어는 원칙적으로 일제 잔재의 일소(一掃)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순화해야 할 대상이고, 서구 외래어는 우리나라처럼 언어 순화 정책을 표방한

나라에서는 그 정책에 따라 추방해야 한다고 보았다. 덧붙여 서구 외래어의 경우, 어쭙잖게 외국어 발음을 흉해 내려는 원음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항(1988)은 순화 대상어로서의 한자어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는 일상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학술 및 전문 분야에서 한자어가 널리 쓰이는 있는 실정을 밝히고, 이들 한자어를 모두 다 고유어로 바꾸기 힘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순수한 우리말을 갖고 닦아서 아름답게 발전시키려면 어색하고 인위적인 새말을 만들어 대중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어, 외래어 대체 순화어, 행정 용어 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써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어에 대해서는 송민(1988)이 일본어의 유입을 조선 시대(1876년 이전), 개화 시대(1876년~1910년), 식민지 시대(1910년~1945년), 광복 시대(1945년 이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만큼 그 간섭이 형태·통사 중위로부터 언어 의식에 이르기까지 국어의 모든 중위에 걸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어 속의 일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구어나 비어 또는 전문어 속에 나타나는 고유 일본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어에 나타나는 일본식 한자어와 관용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서구 외래어에 대해서는 서정수(1988)가 서구 외래어의 사용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날 상호나 상품 등에서의 외국말이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이러한 외국말의 범람 자체가 우리말의 발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것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만을 숭상하고 받드는 사고 방식을 체질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황찬호(1988)도 외국어가 국어 구문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어 본래의 구문이 크게 손상을 입고 있음을 밝혔다. ‘……에 의해+피동’ 표현, ‘……

것·‘……합’ 등의 명사화, 과거 완료 시제의 ‘-었었-’, 인칭 대명사 ‘그녀’, ‘……에로의’·‘……에의’ 등의 상용 표현 등이 모두 다 외래 구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황찬호(1995)는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의 ‘영한 사전의 번역어 문제’를 통해서도 영한(英韓) 사전 대부분이 영일(英日) 사전을 중역(重譯)한 것이고, 이로 인해 영한 사전의 번역어 및 번역 표현의 상당수가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고 외래 구문(일본어 및 영어)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국어생활》 제14호(1998, 가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순화 운동’이라는 소제목 아래 유만근(1998), 홍승오(1998), 이병찬(1998), 서재만(1998), 강인선(1998) 등을 통해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일본 등의 언어 순화 정책 및 운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국어 순화’라는 소제목 아래 유종호(1998), 정연찬(1998), 김계곤(1998), 정운종(1998), 이강로(1998) 등 국어 순화에 대한 어문학 관련 종사자 6명의 견해도 실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다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국어생활》 제14호(1998, 가을)와 마찬가지로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도 ‘국어 순화’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 《국어생활》 제14호가 순화의 대상 및 방법을 다루는 내용의 글들을 실은 데 반해,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는 기존의 국어 순화 방식과 논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내용의 글들을 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유재원(2005)은 잡스러운 것을 몰아내고 순수성을 가진 고운 말, 바른말, 쉬운 말을 쓰도록 하는 것이 국어 순화라고 보는 기존의 국어 순화 정의가 다분히 계몽주의적이었음을 지적하고, 국어 순화는 정확하고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해 낱말, 표현, 어법 등을 정리하고 좋은 본보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말이 풍부한 표현력과 상상력으로 깊은 사고를 담

을 수 있도록 우리말을 다듬는 일이 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국어 순화는 단순히 낱말 다듬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과 세련된 느낌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고의 도구를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희수(2005)는 기존의 논의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국어 순화의 정당성, 합목적성,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국어 순화를 ‘언어 순결화’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언어 순화가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어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에서 국어 순화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우리의 국어 순화가 그 정당성을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제시할 뿐 객관적인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화 전략이 지극히 영성찬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성(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재인식함으로써 순화 전략의 영성함을 극복하고 미진한 근대화의 완성·불완전한 공통성의 성취·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의 구현 등에서 국어 순화의 합목적성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용찬(2005)도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의 개념,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 정책이 ‘순수 우리말 쓰기’ 그것도 주로 어휘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음을 반성해야 하고, 앞으로의 국어 순화는 ‘순수 우리말 쓰기’ 차원이 아닌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2004년 7월 5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킨 가운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를 통하여 다듬은 말을 소개하고, 국어 순화의 방식을 ‘정부나 전문가 집단 주도(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적, 일방적, 타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 참여(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적, 쌍방향적, 자율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남호(2005)는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가 비속어 쓰지 않기와 순수 우리말 즐겨 쓰기에 치중해 왔으며, 국어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어 순화

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단순히 단어 차원에서 어떤 단어 나 표현을 쓰지 말자고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문장과 글을 바르게 쓰는 것이 국어 발전을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임을 주장했다. 또한 우리말의 풍요(광범위하고 섬세한 국어의 표현력)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한자어건 일본어건 외래어·외국어건 그것을 배제하지 말고 포용해야 함을 지적했다.

한편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에서는 우리의 국어 순화 방식과 논의에 얼마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운동과 프랑스의 자국어 순화도 소개했다. 먼저 김석향(2005)은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운동은 단순히 외래어와 한자어를 우리말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발음을 바꾸거나 억양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중의 가치관 정립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과정과 그것에 대한 세터민의 평가도 살펴보았는데 세터민들은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북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하는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즉, 세터민들은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에 대해 단순히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의 범위를 넘어 정서적, 감성적 반응까지 보였다고 결론지었다.

송기형(2005)은 프랑스의 자국어 순화 가운데, 특히 1960년대부터 영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언어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프랑스가 1970년대 초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전문 용어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전문 용어 위원회)를 소개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에서 전문 용어 위원회를 통해 개발된 전문 용어나 신어가 통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영어의 영향력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현행 프랑스의 전문 용어 개발 장치가 영어에 대한 프랑스어의 열세를 만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끝으로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는 이전의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처럼 ‘국어 순화에 대하여’(102-120쪽)라는 제목 하에 어문학 관련 종사자 10명의 좌담 결과를 실었는데, 기존의 국어 순화 정책의 문제점과 종합적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국립국어원에서 전개할 국어 순화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좌담에서는 국어 순화가 국민의 호응을 더 널리 받기 위해서는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국어 순화의 목적과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은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을 통하여 꾸준히 국어 순화를 특집 주제로 다루어 왔다. 이는 그만큼 국어 순화를 주요한 국어 정책 분야의 하나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 외래어 사용 실태, 국어 순화 방안 등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국어연구소 시절 이래로 꾸준히 다루어진 주제임에도 논의의 한계가 얼마간 드러난다. 그렇다면 필자가 생각하는 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지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외래어와 외국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원론적인 외래어 개념 정의 및 재정의는 현실적으로 거의 무의미하거나 무익하다. 적어도 국어 순화 대상어로서의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올바른 국어 순화를 위해서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외래어 사정과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외래어 개념’에 대한 논의는 ‘외래어 사정 원칙’과 ‘외래어 사정의 세부 기준’을 담은 ‘외래어 규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유계원(2004)과 같은 외래어 수용 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거의 없었다. 미래 지향적인 외래어 수용 태도란 어떤 것인지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어 순화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언어 의식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거나 현 시점에서 고유어 또는 외래어에 대한 언어 의식 정도를 철저히 조사·분석하는 연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외래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외래어의 남용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외래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지나칠 정도로 경도돼 있다. 그렇다 보니 외래어 사용 실태에 대한 논의가 여럿 있었으나 결론은 모두 다 판에 박은 듯이 똑같았다. 그러나 외래어 사용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남호(200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말의 풍요(광범위하고 섬세한 국어의 표현력)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외래어의 남용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외래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 그것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외래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래어의 올바른 사용이란 올바른 표기와 발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에 이르러서야 국어 순화 목적과 방식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함목적성과 전략 수립)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는 국어 순화를 너무나 당연시해 왔으나, 올바른 국어 순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나 국어 순화를 국어 정책학의 한 분야로 제대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국어 순화의 목적이나 필요성과 방식이나 전략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순화 대상어의 선정과 순화어 생성 및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국어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를 국어학적으로 분석·연구한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국어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의 분석도 필요하거나와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의 논의는 향후 어떻게 적절하게 국어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거나 순화어를 생성·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신항(1985),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 유입 양상, 《국어생활》 제2호 (1985, 6), 23-36.
- 강신항(1988), 한자어 사용의 현실과 처리 문제,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4-24.
- 강신항(1995), 일본 한자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27-60.
- 강신항(2004), 외래어가 국어에 끼친 공과,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2004, 여름), 23-57.
- 강인선(1988), 일본의 국어 순화 정책,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08-114.
- 고성환(1988), 신문·잡지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88, 여름), 81-101.
- 김계곤(1988), 국어 순화의 방향 잡기,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19-120.
- 김광해(1995),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3-26.
- 김민수(1988), 국어 순화의 현실과 전망,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4-13.
- 김석향(2005),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59-74.
- 김세중(1992), 신문 광고와 외래어,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 여름), 50-64.
- 김세중(1998), 외래어의 개념과 변천사,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1998, 여름), 5-19.
- 김중서(1985), 외래어 동어 이표기: 자료(영어), 《국어생활》 제2호 (1985, 6), 58-64.
- 김하수(2005), 국어 순화의 문제점과 극복의 길,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19-35.
- 남종현(1985), 국어 속의 차용어—고대 국어에서 근대 국어까지—, 《국어생활》 제2호(1985, 6), 6-22.
- 박갑수(1992), 방송 광고에 나타난 언어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 97-114.
- 박갑수(1995), 언어 규범으로서의 방송 어휘,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겨울), 89-115.
- 박갑천(1985),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수용 태도, 《국어생활》 제2호(1985, 6), 37-42.
- 박용찬(2005),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의 운영 내용 및 성과,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37-57.
- 박재양(1995), 신문·방송 분야에 쓰인 일본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126-147.
- 박창원·김수현(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 59-102.
- 서재만(1988), 터키의 문자 개혁과 언어 순화,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02-107.
- 서정수(1988), 서구 외래말의 문제,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35-44.
- 서정수·우인혜(1995),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외래 어휘,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61-86.

- 송기형(2005), 프랑스의 자국어 순화—전문 용어 개발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75-88.
- 송민(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25-34.
-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21-40.
- 신각철(1995),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108-125.
- 신인섭(1992), 우리나라 광고 언어의 변천사,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 2-19.
- 유만근(1985), 다른 나라에서의 외래어 수용 양상, 《국어생활》 제2호(1985, 6), 44-54.
- 유만근(1988), 외래어의 영어화와 방송의 표준 발음 수범,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80-86.
- 유재원(2004), 외래어의 올바른 수용 태도,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 103-116.
- 유재원(2005), 국어 순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7-17.
- 유종호(1988), 거래말 되찾기와 바른 말 쓰기,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15-117.
- 이강로(1988),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24-125.
- 이남호(2005), 국어 순화는 풍요가 되어야 한다,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89-101.
- 이병찬(1988), 독일의 국어 순화 운동,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94-101.
- 이선영(1988), 상호·상표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

- 2호(1998, 여름), 103-119
- 이영택(1988), 국어 순화는 방송 매체가 앞장서야,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20-122.
- 이은경(1998), 방송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1998, 여름), 41-59.
- 이정복(1998),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61-79.
- 이주행(1992), 신문·잡지 광고에 나타난 언어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 81-96.
- 이주행(1995), 신문 기사의 문장,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겨울), 25-43.
- 임흥빈(1997),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글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 정 광(1995),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87-107.
- 정연찬(1988), 국어의 개발, 그 끊임없는 노력이,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17-118.
- 정운중(1988), 국어 순화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22-124.
- 정재도(1995), 생활 속에 남은 일본 말,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1995, 여름), 176-207.
-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2004, 여름), 5-22.
- 최규일(1995), 방송과 신문에 나타난 일본식 말 순화, 《새국어생활》 제 5권 제4호(1995, 겨울), 116-162.
-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 국어연구원

- 허철구(1995), 건설·미술 분야의 일본어와 대응 양상,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148-175.
- 홍승오(1988), 불어의 순화 운동,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87-93.
- 황찬호(1988), 외국어식 구문,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45-58.
- 황찬호(1995), 영한 사건의 번역어 문제,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226-232.

